

울름조형대학의 발전과정에서 나타난 기능주의와 그 이상향

Functionalism and its Utopia in the Development of the Graduate School Ulm

이병종

Lee, Byeong-Jong

중심어: 미술가 디자인, 과학적 디자인, 요소시스템디자인, 환경디자인

머릿말

50 년대에 들어서면서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룩한 서독은 수출증대를 위하여 대량생산제품의 개발을 통한 국제경쟁력 강화를 꾀하였다. 여기에서 디자인이 제품의 질적 요소로 그리고 판매증진의 요소로 이해됨으로서, 제품개발을 위한 디자인의 개발이 강하게 요구되고, 또한 디자이너 양성을 위한 대학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러한 사회적 요구에 힘입어, 울름조형대학은 1953년 8월 문을 열게 되었다. 그리고 1968년 9월 바덴뷔르템베르크 주 정부의 결정에 의해 문이 닫힐 때까지, 이 대학은 디자인 역사상 중요한 과학적 디자인을 기능주의의 바탕하에 발전시켰다. 이 발전과정에 명확한 시기적 구분은 없으나, 다음과 같이 3 단계로 나누고, 그 각각의 발전과정에서 나타난 기능주의와 그 이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1. 솔형제재단에 의한 설립 (1947-1953)

울름조형대학의 설립은 1947년 솔형제대학이란 이름 하에, 울름시민대학을 모체로한 새로운 형태의 대학설립에 대한 계획에서 시작되었다. 울름시민대학의 설립자들인 잉에 솔과 오토 아이허 그리고 한스 베르너 리히터 등은 반파쇼 운동의 전통을 이어받아, 나치에 의해 희생된 한스와 소피 솔을 기리는 대학을 울름에 세우고자 하였다. 또한 이 대학에서 바우하우스의 이념을 계승함으로써, 당시 재건되고 있는 국수주의 세력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정치, 경제, 과학 그리고 예술분야의 새로운 민주주의 엘리트를 양성하려고 계획하였다. 1950년 초부터 막스 빌이 여기에 참여하게 되고, 바로 그해에 이 대학의 설립계획과 건축에 있어서 결정적인 인물로 되었다. 그는 바우하우스를 계승하는 대학을 설립하고자, 건축과 공업디자인을 이 대학의 중심 학과로 계획하였다. 이로서 솔형제대학은 하나의 조형대학으로 바뀌어 졌고, 서독의 정부당국과 이른바 “Good Form” 개발을 노력하는 산업체들의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그러나 이 대학의 정치적 설립이념과 바우하우스 이념의 계승은 당시 “공산주의자 사냥”의 상황에서 커다란 문제가 되었다. 빌은 한편으로 바우하우스를 정치적으로 중립이라 설명하고, 다른 편으로는 이 대학의 설립 계획에서 정치적 이념을 제거하였다.

빌은 순수미술을 삶의 최상의 표현단계로서, 다른 창조적 조형분야들의 척도로 보았다. 이러한 관점에서 바우하우스는 헨리 판데펠데의 바이마 미술공예학교를 계승한, 즉 같은 이념을 추구하는 학교로서, 진정으로 진보된 미술을 건축과 디자인 및 다른 조형분야들에서 실현시켰다고 설명되었다. 이러한 바우하우스에 대한 해석을 통해 판데펠데의 “미술가의 디자인”이 미술과 기술의 통일을 위해 지향되었다. 여기에서 빌은 미술과 산업 사이의 모순은 새로운 현대적인 미의 개발을 통해 극복될 수 있다고 이해하고, 산업제품에서 미 그 자체가 기능이 되도록 디자인 되어야 한다는, 디자인에서 미 기능의 필연성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관점에서 그는 기초과정을 교육프로그램의 핵심으로 정하고, 형태학과 색채학 그리고 조형학들로서 이 기초과정의 교육을 계획하였다.

2. 막스 빌 시대 (1953-1958)

울름조형대학이 1953년 8월 첫 학기의 시작에서부터 가장 중요하게 내건 것은 “바우하우스의 계승”이었다. 초대 학장 빌은 대학설립계획 초기의 정치적 이념을 억제하고, 정치적 중립인 바우하우스를 계승한다는 약속을 지켰다. 또한 디자인이 순수미술에 바탕을 둔다는 그의 이론에 따른 “미술가의 디자인”을 고집하였다. 그러나 토마스 말도나도, 한스 구겔로 그리고 오토 아이허 같은 젊은 강사들은 처음부터 빌의 “미술가의 디자인”을 반대하였다. 이들은 무엇보다 “환경의 인본주의화”란 진보적 이념 속에서 정치적 의무감을 가졌기에, 당시 시장경제 속에서 썩어버린 미술가들과 동일시 되는 것이 싫었다. 이들은 “Good Form”을 통한 물질적인 복지건설을 목표로 바우하우스의 기본이념을 비판적으로 발전시키고, 산업사회에 상응하는 새로운 합리화된 방향들을 디자이너 교육과 생산분야에서 시도하였다. 빌과 이들 사이에서의 갈등은 새로운 과학과목들을 받아들이면서 더욱 심화되어, 마침내 1957년 빌은 이 대학을 떠나갔다. 이 대립에서 결정적 차이점은 바로 디자인과 미술과의 관계에 대한 것이었다. 디자인이론에서 빌과 가장 큰 차이를 보인 말도나도는, 사회및 과학기술의 발전과정 속에서 바우하우스가 남긴 전통과 교육방식의 답습을 비판하였다. 그에게 중

요한것은 바우하우스를 진보적으로 비판하고 재평가 함으로서, 인본주의적 환경디자인이란 방향 속에서 바우하우스의 이념을 발전시키는 것이었다. 그는 디자인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적 요소들을 다음과 같은 3가지 관점에서 설명하였다. 첫째는 미적인 관점으로, 당시 산업제품에서의 미적인 요소가 디자이너의 유일한 활동대상이란 단편적인 관념을 비판하였다. 여기에서 미적 요소 뿐 아니라, 구조설계적, 경제적, 생산적, 그리고 절제된 상징적 요소들 또한 디자인 활동의 근본바탕을 이루는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둘째로는 생산과 소비의 관점에서, 미적 요소를 디자인의 본질적 요소라고 보는 것은 생산자의 이익만을 위해 교환가치의 증가만을 꾀하는 것이라고, “Styling”을 그 전형적인 예로 들어 비판하였다. 그는 사용가치와 교환가치의 대립모순은 사용가치가 교환가치의 물적 토대로 됨으로서 극복된다고 보고, 교환가치의 향상은 사용가치의 미적 개발을 통해서 이끌어져야만 한다고 설명하였다. 이에 따른 디자이너의 새로운 역할은 여러 엔지니어들과 함께 최대의 생산성을 이끌고자, 즉 사용자들의 물질적 그리고 문화적 최대의 만족을 이끌고자, 다양한 생산과 소비의 요구들을 충족시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세째는 기술과 학적 관점으로, 생산은 특정 기술적 조건하에서 더욱더 자동화 되어갈 것이기에, 디자이너는 자신의 영역에 속한 요소들 이외에도 이러한 생산방식의 변화에 따른 더 많은 것들을 고려해야만 한다고 설명하였다.

울름조형대학에서 디자이너는 이제 더이상 미술가가 아니고, 현대적 생산과정에서 다른 전문분야의 엔지니어들과 동등하게 참여하는 디자인 엔지니어로 규정되었다. 디자인 과정에 보다 많은 과학이론들이 도입되어, 객관적이고 보편타당한 과학적 디자인개발을 꾀하였다. 여기에서 디자인개발은 제품 뿐만아니라, 사람과 사람의 욕구, 경제시스템 그리고 자연과의 관계 모두를 연구하는 것을 전제로 하였다. 이렇게 함으로서 기술적으로 완벽하고, 사용목적에 합당하며, 미적 사용에 문제가 없는 “Good Form”을 디자인하고자 노력하였다.

3. 조형학과들의 과학화 (1958-1968)

이 시기에 과학과목들은 울름조형대학의 근본적이고 필수적인 교과과정으로 인식되고, 이 과학과목들을 통한 디자인방법론의 개발이 공업디자인 학과의 중심과제가 되었다. 그리고 디자인방법론의 개념은 환경디자인의 추구로 발전되었다. 여기에서 구겔로의 과학적 요소시스템 디자인은 환경디자인 개념의 실천적 방법으로서, 디자인 프로젝트들의 구심점이 되었다. 이 당시 독점기업의 무분별한 생산에 의한 환경파괴는 이 대학 안에서 심각한 문제로 제기되고, 이 문제에 대한 의견차이로 인하여 둘로 갈라져 대립하게 되었다. 그 하나는

기술과학분야의 강사들 사이에서 시작된 기술과학에 대해 과도한 희망을 표명하는 기술맹신주의로서, 올바른 디자인의 증명 및 측정가능성에 대한 믿음이었다. 이들은 객관화 할 수 있도록 명료하게 정의되고, 가능한 논리적 결과를 통하여 수량으로 표시된 판단기준들을 가지고서, 디자인개발에서의 오류들을 제거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다른 하나는 말도나도와 구겔로 그리고 아이허를 중심으로 한 그룹으로, 이들은 사용가치를 높이고, 영구적인 제품을 계획하고, 또한 소비 및 낭비를 줄이는 것을 추구하였다. 말도나도는 구겔로 그리고 아이허와 함께 1960년 도쿄에서 열린 세계디자인회의에서 객관적 방법의 사용의 필연성을 역설하였다. 객관적 방법은 무엇보다도 정보를 수집하고, 분류하고, 해석하고, 선택하고, 그리고 결정을 준비하는 것들을 가능하게 하는 과학적 방법들이라고 설명하였다. 그러나 여기에서 방법에 대한 지나친 희망이나, 특정 방법들의 사용이 자동적으로 그리고 필연적으로 최고 수준의 독창적 결과를 보장한다는, 편협된 믿음에 대하여 경고하였다.

그리고 바우하우스 이념의 발전적 계승이란 관점에서 기술문명에 인본주의적 시각을 이끌고자, 즉 인간의 환경을 새로운 구체적 디자인영역으로 바라보고자 노력하였다. 이로서 환경디자인은 1965년 부터 새로운 목표이자 디자이너의 근본적인 과제로 설정되었다. 여기에서 환경디자인은 단지 기능적인 사물들의 디자인만이 아닌, 전체 환경의 구조를 변화시키는 것이었고, 디자이너는 환경엔지니어로 이해되었다. 이제 이 대학에서의 디자인은 과학적 활동으로서 인간환경의 개선에 봉사하는 구체적 사물과 제품들을 조형하는 것이 되었다. 이에 따른 디자이너의 기능은 새로운 수요들과 새로운 제품들을 사용자의 이익안에서 이루는 것으로 보고, 사회적 모순을 인본주의를 바탕으로 한 과학적 디자인으로 극복하고자 노력하였다. 그 결과 디자인활동에 대해 사회적 책임을 지는 디자이너의 의식이 요구됨으로서, 이러한 환경디자인의 추구는 결국 의식의 정치적 관념화로 이끌어졌다. 이러한 경향은 서독 정부당국과 산업체들에게 위협한 저항운동으로 비추어 졌다. 이로서 울름조형대학은 1968년 9월 문을 닫게 되었다.

결론

울름조형대학은 대량생산소비사회에서 새로운 문화건설을 위하여, 바우하우스의 이념을 구체적 현실 속에서 발전시킴으로서, 오늘날의 디자인과 그에 따른 대량생산소비문화에 큰 영향을 끼치었다. 또한 정보사회로의 변화과정에 있는 우리에게도 이 대학과 이 대학이 추구한 환경디자인은 하나의 중요한 역사적 산물로서 큰 의미를 주고있으며, 무엇보다 앞으로의 “Ecological Design”과 “User Surface Design” 등의 개발에서 그 의미는 더욱 클 것이다.